

코로나19 디테일 방역 총력

임실군,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 시설·밀집지역 관리 강화 등 중점방역대책 시행

임실군이 코로나 바이러스 디테일 방역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군은 터미널 이용객 및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 시설 및 밀집지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중점방역대책을 추가로 세우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대구·경북 등 타지역 방문자와 터미널 등 이용객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 임실터미널 출입문을 단일화하고 터미널 이용객에 대해 발열 여부 확인에 나섰다.

군은 터미널 정문을 제외한 출입문을 전면 통제하고, 일원화된 출입구에 발열확인구역 설치 후 37.5도 이상 발열자 확인 시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발열여부 확인과 함께 터미널 출입 모든 인원에게 손 소독제 사용유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감염 예방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군은 터미널 내외부를 방역업체와 의료원에서 매일 소독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집단감염에 취약하지만 휴관이 불가능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임실군은 터미널 이용객 및 소규모 집단감염 우려 시설 및 밀집지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중점방역대책을 추가로 세우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총 7개소의 사회복지 생활(거주)시설에 대한 방역상황을 한층 강화해 점검한다. 관내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345개소, 장애인이용시설 3개소 등 총 372개소는 휴관 중이지만, 이들 시설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회제한과 발열체크, 방역 및 소독 등 자발적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왔으나, 집중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출퇴근자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PC방과 노래방, 학원 및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군은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중요한 고비라고 판단하고, 업주들에게 일시적 임시 휴업 동참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심민 군수는 "소규모 집단감염우려 시설과 전통시장, 밀집지역 등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터미널 방역 및 감염병 예방을 최대한 강화해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지역주민 코로나19 따른 불안·스트레스 심리지원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도움 받을 수 있어

임실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과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심리지원 상담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의심이 많아져 주위사람들을 경계하게 되며,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무기력해지는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믿음만한 정보에 집중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에 대해서는 주위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이 좋다고 군 관계자의 조언이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누구나 정상적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언제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640-3121)로 문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불안감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심리적 위안이 필요한 경우나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전화(당선 결연 1393)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불안 및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심리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심리적 상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 홍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부터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새롭게 지원되는 공익적 불이익을 홍보하며,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변경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063-635-6060)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우편(남원시 충정로 252), 팩스(063-635-6064)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농관원 남원사무소에서는 콜센

터나 전화, 인터넷 외에도 농업경영체 전용 태블릿PC를 개설해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문자나 카카오톡 신청방법은 먼저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변경신청서, 신분증, 기타서류를 촬영해 농업경영체 전용 태블릿(010-5742-6064)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친구 추가)으로 전송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16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스토어에 '순창 로컬푸드 쇼핑몰'을 개설해 로컬푸드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30여개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에 들어간다.

'순창 로컬푸드 쇼핑몰' 개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활용... 30여개 제품 판매 예정

순창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내 농특산물의 오프라인 판매량이 위축됨에 따라 극복방안으로 전국 단위의 스마트스토어 플랫폼을 활용한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에 나선다.

군은 16일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스토어에 '순창 로컬푸드 쇼핑몰'을 개설해 로컬푸드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30여개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순창군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로컬푸드 납품을 담당하는 개별 농가·단체의 농특산물 판매 홈페이지(배너)를 링크, 연계하는 등 온라인망 확대에 주력한다.

군은 쇼핑몰 초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품질과 포장 등이 우수한 관내 개별 농가·단체들을 대상으로 농·특산물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품가격의 인하를 유도해 타 쇼핑몰과의 차별성을 두는 데 노력하고 있다.

가격인하로 인한 농가들의 손실은

인하된 가격만큼을 배송 물류비로 개별 농가에 보전해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스마트스토어 개설로 관내 로컬푸드 입점 농가·단체와 행정,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 농가 소득 증대와 군 농특산물 상품의 공신력 강화,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활용해 소비자들을 찾아가는 만큼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산물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온라인 유통망 확대를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로컬푸드 자체 쇼핑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향후 농특산물 직판장 및 개별 농가·단체의 홈페이지 관리 소요비용을 국비중산으로 지원코자 관련 계획을 검토중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미꾸리 양식 부가가치 높인다

남원시가 신 소득작물 발굴 실증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무환수 미꾸리 양식방법과 아쿠아포닉스 기술연구를 병행 추진해 남원 미꾸리 양식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는 물고기 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droponics)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식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친환경적인 농업 방식으로, 물고기 배설물과 사료잔여물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식물의 영양분(질소)이 되고, 식물이 질소를 흡수 하고 남은 깨끗한 물은 수조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물을 교체하는 번거로움과 교체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배설물을 식물의 비료로 활용하고 농약이 전혀 사용되지 않아 고효율의 친환경적인 생산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동안 배추, 메기, 향어, 동자

개, 털피라 등의 양식어종에 활용됐으며, 상추, 허브, 토마토, 블루베리, 새싹인삼 등의 작물에도 적용된 바 있다.

이에 센터에서는 아쿠아포닉스 기술 연구를 통해 그동안 자체연구 발전시켜온 미꾸리 무환수 양식기술과 아쿠아포닉스를 연계, 미꾸리 육성수조에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를 통해 식물을 키워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무환수미꾸리 아쿠아포닉스 실증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센터측은 무환수 미꾸리 양식 기술이 적용되는 수조와 식물재배 배드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미꾸리 양식과 수경재배 시스템 운영 효율 및 농가 소득극대화 차원에서 가장 부합되는 식물을 찾아 최적의 미꾸리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최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기획담당관, 국과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임실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신대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월은 한해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금년도 계획과 각종 시책, 사업들이 시행적으로 없이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처해있는 만큼 불행 중의 행운을 통해 우리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금 의원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상규·조재수 임실군청 퇴직공무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농기센터, 사과 화상병 방제·전정 마무리 지도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사과 화상병 예방을 위해 약제공급 및 화상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동계 전정 마무리 지도하고 있다.

사과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고온에서 전파 속도가 빠른 식물의 법정 전염병으로, 발병하면 과수원 폐원 후에도 3년간 사과와 배 등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으며, 폐기명령을 위반한자는 식물방역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상병에 감염되면 과실 수확량이 큰 영향을 주고 심하면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기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약제에 따라 사과는 신초 발아 전까지 적약약제를 살포해야 효과적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경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